

학생회보

제 2 호 워싱턴주 한국학생회 1973년 2월
 SMITH HALL Rm 31, U of W

한국사 세미나

한국사 세미나가 오는 2月28日부터 3月2日까지 워싱턴 대학에서 열릴 예정이다. Harvard 대학의 Wagner 교수의 Western Michigan 대학의 남천우 교수 등 미국내 유명한 한국사 교수 교수 참석하는 이 세미나의 주제는 "한국 연구에 관한 전문 용어 및 Romanization 통일 문제"이다.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서독우 박사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1 절 기념 행사

금년도 3.1 절 기념 행사가 3월 1일 오후 7시 30분 HUB 강당에서 개최 예정 인바 남천우 교수 특별 기념 강연이 있을 것이다.

인문사회 · 이공계 대학 배구대회

학생회 주최로 인문사회 · 이공계 대학 배구대회가 2月17日 (토요일) 오후 7시 JMA에서 열리기로 준비 출전팀 선출 희망자는 우현 (인문·사회) · 권영길 (이공)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수입금 학생회 장학금 기탁

지난 11月23日 가진 바 있는 영환감상회에서 수입금 50불은 학생회 내역 장학금 기금에 기탁 하였습니다.

在京 워싱턴 대학 동창회

在京 워싱턴 대학 동창회에서는 1972년도 정기총회를 가자고 아래와 같이 양원을 개선 하였습니다.

- 회장: 왕 태 은
- 부회장: 정 소 영 · 홍 승 식
- 사무실: 서을 중구 백남빌딩내 동성 하은 (22-2444)

— 이 소식 저 소식 —

김실동형 어려운 박사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시어 한숨 돌리셨다고. 축하합니다.
 이기련형 지난 1월 20일에 드디어 화족을 밝히시어, 노총각 회에서 제명됨.
 이의환형 부인이 귀국하여 잠시 독신생활을 즐기시게 되었음(?) 스승이신 高次의 한배로 교수를 접대 하저었음.
 김철준형 경제과이 중년의 입학하신 형은 최근 3714 12th N.E.로 이사.
 이동찬형 다음 학기 광산과 졸업예정으로 바쁜 가운데 이상 없음.

이창걸형 UW로 전학하시어 경영학 공부에 열심. 학교 기숙사로 이사하시었음.
 김흥기형 지난해에 액땜을 하시고 금년에는 수가 풀리는 것 같으시다고. 국제관계 학회이 제출한 "World Elite" 연구 논문을 다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二세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이양길형 고대 김경원 교수를 접대 하저었음.
 윤승영형 1월 6일 부친상을 당하시고 장황 없는 중에 위로해 주신 친구에게 감사하신다



우 산 조 미 정

시메들로 오기전 무엇보다도 먼저 마련한 것은 검정 우산이었다. 새로운 도시에 대한 호기심 보다 런던의 날씨를 방불케 한다는 비가 내릴 가장 주눅드는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일년의 대부분이 비가 내리고 있지 않으면 항상 비가 내릴 것 같은 분위기가 어느 있나 내가 여기에 처음 왔을때는 나더 위화감을

겪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다음같이 피아란 잿을 띄운 있던 불이었다. 툭툭한 검정 우산으로 비를 맞아들이기만 말만은 준비가 된 나에게 좀 간지러운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었고 우산을 쓴다 해도 내 옷은 다치 물을 급게 튕은 빨래처럼 곧고루 젖기 마련이었다. 게다가 우산을 쓴 사람을 별로 볼수가 없고 비닐 모자 정도로나 비를 가리고 모두들 비를 의식치도 않은채 바삐 걷고 있었다. 는 여기서, 우산이 거치장스러운 존재밖에 못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과연 끈질기게도 연쪽에서 비가 내렸고 이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무한한 중앙감 보다 자증이 앞서는 도리를 하늘을 보게 되었다. 시원스럽게 뿌려지는 여름 소나기도 아니고 환절의 파목을 가져 오는 겨울비도 아니고, 봄비의 사랑스러운 터구나 느낄수 없는 소리로 없이 항상 오기만 하는 비였다. 어쩌면 편들이 반쯤 함께 걸음을 내 밟았을때 머리까지 비를 치아리도 양는듯이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Fine day" 이 대한 호들갑스러운 정도의 감사와 영안이 터져나오는 것은 정말 의외였다. 사소한 것이 대한 경외를 표시하지 않는 생활에 겪은 나에게 별것을 가지고 다 야단들이 라고 여겨졌다. 지루한 비에 대한 귀중한 보상처럼 시메들의 여름은 나도 모르게 날씨에 대한 찬란이 한 뭉치 뛰어 들게 하였다.

우산과 주눅드는 상상을 안고 시메들의 문지도 거친 일년이 되어간다. 비와 내 우음은 이제 아무런 상관도 없이 있었고, 검정우산은 별로 유용하게 써 볼 기회도 없이 뒷장 구석에 건조하게 걸려 있다. (언어학과)





전공순례 ②

(해양생물 발생학) 이 양 립

전공을 선택한다는 데 이는 애초에 모호
 있었던 것 같다. 전공이 대해서 배워 전
 전공을 선택해야 한다는 자취를 일찍 알
 려야 하게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전공
 이 대하여 알거나 모르거나 간의 전공을 선
 택해야 할 때가 오고 또 그렇게는 하고
 는 것이 사실이다. 어느 분의 말씀을 잠
 들 빌리기로 하자. "누구나 공부를 하다 보
 면 그렇게 싫은 것도 있고 그렇게 좋은 것도
 다" 라는 말을. 그리고 보면 전공을
 선택했다느니 보다 전공에 의하여 선택된
 것이 든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것
 하면 못하겠다" 라는 특수형이 있는
 것이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후자의
 원인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보면 내가 선
 택한(?) 전공이 어떠한 경로를 밟아 선택
 된 것인지 대강 짐작이 갈만 하다.


해양생물분자 발생학, 환수 있는 것
 러보면 이만큼이나 길다란 이름의 전공이다.
 이름이 생기기까지의 경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자세히 쓰자면 신세라령까지
 돌아가기 쉬우나 간단하게 표현해 보기로 하자.
 처음에는 생물학이란 이름으로 등장하였다.
 생물학을 끝내고는 생물학위에 발생학이라
 이름이 덧붙고, 미학으로 본 후, 해양이
 붙고, 근래에는 생물과 발생사이의 분자
 는 많이 첨가 되었다.

해양학은 바다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반면
 해양생물학은 바다에 사는 생물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발생학은 간단히 말해서
 생물이 발생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명현상은 하나의 순환이다. 알이 수정
 되어 수정하여 성숙을 되고, 그러는 동안
 다시 알이 생.체에서 발생되어 수정
 수 있도록 성숙하는 것이다.

수자라는 낱말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어
 떤 뜻나 하다보면 중선과 횡선이 맞닿는
 점이 생기게 되는 것 같다. 발생학이 중선이
 라면 수자는 횡선일 뿐이다. 단백질이나
 핵산이나 하는 고수자를 중심으로 세포의
 機作을 설명해 보려는 노력이라고 하여 그렇게
 이름 지은 것 같다.

하지만 흔히 이렇게 긴 이름을 쓰지는 않는다.
 발생학이나 海洋生物學, 혹은 수자생물學이라
 는 등의 일면을 취해서 표현하게 된다.

생물學者들의 가장 큰 心事를 간단히
 설명해 두는 것이 終極을 위해 좋은 것 같다.
 즉 "해변의 씨포가 들씨포로, 다시 울음의 씨포
 가 특정한 기능을 가진 씨포로 분화하여 조
 직 그리고는 기관을 만드는 과정이 어떠한 요인
 에 의하여 조절되는 것이냐?" 라는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조
 절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유전자의 表現과
 씨포와 씨포의 細胞체위를 듣고 있다.
 종추를 막을하고 씨포내의 유전자의 질적 및
 양적내용은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유전자의
 발현에는 차이가 있다. 씨포의 특이한 분화는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유전자
 의 발현이 왜 다르냐?
 이 이상 더 설명하자면 나 자신에게도
 알송 알송 한 말을 길게 늘어 놓아야 할 것
 같다. 그저 문제를 제시하는 정도로 이 글을
 끝내기로 하겠다.



새서울

**KIM'S
ORIENTAL CUISINE**

Jung Chil Kim 6815 ROOSEVELT WAY N. E.
Jung Nam Kim SEATTLE WASH. 98115
 TEL. LA3-7661

매일 4시부터 6시까지, 각종 메뉴를
 한국 학생들이 한하여 \$2.00로 봉사함.

학생부인有感 ②



무지개 꿈

정해수

일찌기 미국에 와서 이곳에서 공부를 끝내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선배님을 댁을 방문 할 기회가 여러번 있었다. 내가 보기에는 살림살이가 가난한 우리 학생 생활과는 비교가 안될만큼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모두들 하시는 말씀이 "되니 되니 해도 학생 시절이 더 좋았다고" 하신다. "왜요?" 하고 우문같은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 "학생때가 그러도 다음 편하고 희망도 있고 ---" 하는 대답이 일반이다.

처음 이곳에 왔을때는 한국에서 하던 바닷대리 구두는 다문화로 양화권의 가져 사는 것으로 알았고 운동화 마저 그런 집에서 비싼 것으로 사시는 적도 있지만, 금금 생각해 보아도 미국 생활 살면, 가난한 학생부인으로 지내는 동안 학생 생활이 더 좋다고 생각해 볼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몇천 이라도 아껴보려고 애쓰다 보니 집안의 물건치고 Sale 딱지가 안 붙은 것이 없고, 설참 죽이는 비록 5천, 7천 짜리 쿠폰이라도 버리지 않고 잔뜩 모아져 있는가 하면, 옷 가게 앞은 으레 붙착 안 붙착 지나가 버리는 것이 상수라던가 --- 하는 따위다.

그런데 학생 생활이 힘든 것은 미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학교 아타르만 몇군데 들다보니 자연 미국 학생들 살림도 많이 보게 되고 그들의 알뜰 함이 감탄할 때가 많다. 아이디어도 다채로워서 버리는 형질만 몇년 모아 꾸미쳐 멋있는 Room-Size Rug을 만든 여자로 보았고, 버리는 우유통과 빈 Chlorax 통으로 아이들 장난감을 희안하게 만든 쓰는 여자로 보았다.

그러나 되니 되니 해도 도둑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는 격으로 남편도 같이 협조를 해야지 부인만 아끼고 알뜰하게 산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워낙이 대사에 부지런하거나 약삭스런 면이 없는(?) 우리 애기 아빠는 공부라고 뭐 그리 남똥이 열심히 하지도 않거만 "가끔 Relax 를 해야 기분도 풀리고 공부도 더 잘 된다"고 주장하면서 (근심, 내가 보기에는 항상 Relax 만 하는 것 같은데...) 비싼 Record 판을 사 듣는다거나, 돈 알리는 운동도 많은데 꼭 비싼 스키를 해야 되겠다고 무인다거나 --- 등등, 어떤 때는 스키나 화가 나서 몇마디 하면 금방 "공부를 더 잘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니 공부 소리만 나오면 스키나 화가 죽어 버리는 파누리의 약점을 단단히 이용 하는 것 같다. 근심 되니 되니 해도 남편이 공부를 제대로 끝내야 희망에 사는 보람이 있을 우리 학생 부인들이나 공부 끝날때까지는 그저 가만히 참을수 밖에 --- 공부만 끝내면 --- 하고 하루에도 몇번씩 제란 장수씩 무지개꿈을 그려 보는 것이 비단 나 혼자 뿐일까?! (박우선 형의 부인)

PROLITHIO Commercial Printing 2617 5th Ave Seattle Wash 98121 MA2 7371 Gil R. Kim



論壇

狀況倫理

박건홍

"狀況"이라는 의미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나 처지로 이해한다면, 어떤 具體的인 狀況下에서 한 個人 또는 集團이 가져야 할 行動規程을 狀況倫理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大學生을 가문이라는 요소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變化를 느끼면서 이미 어떻게 처해야 하나 하는 문제를 놓고 부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줄로 안다. 다시 말해서 우리 大學生 처럼 지금 적지 않은 狀況倫理問題에 當面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의미 하나로 누구나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듯한 20년 도약을 다친 후의 가치에 관한 태도를 들 수 있다. 비록 할 수 없는 內情을 注視하면서 내린 裁量의 判斷과 決定이 모두 다를 수도 있겠으나, 크게 나누어 이 문제에 대한 解決 大學生들의 태도를 세 가지 類型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로 "귀족型"을 들 수 있겠다. 曩昔처럼 如何한 일이 있더라도 한층이 들어가 밟아 밟아 고 마음을 먹고 있는 이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 장래에 처한 境遇가 있던 없던 간에, 돌아다려 하는 動機가 個人에 따라 다르겠으나 배운 지식을 한층이 가서 풀어 먹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점이 아마도 이 "귀족型"이 갖는 共通點인 것 같다. 둘째로 "永住型"이 있다. 美社會의 더불어 살기를 確固히 決定한 사람들이 이 부류에 해당한다. 아마도 이들에게서 의 生活願望이 어느 면에서 보든지 한국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느끼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決心을 한 階級의 他國에는 한국적 環境에 처한 不適應, 幻滅感, 또 그보다 더 깊게 한국적 文化, 倫理體系에 대한 憂鬱감 같은 것이 깔려 있을 것 모른다. 아무튼 "永住型"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西

文化 내지는 美文化에 대한 신뢰감, 그렇지 않으면 이 社會 制度에 適應성을 認許하고 그 후의 自衛과 自衛의 手段을 考한 位置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총체 말하면 展覽會 準備의 소우라 들이고, 단리 말하면 이모 저모 "논의"를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할까? 아마도 大學生들의 대부분이 이 類型에 속하지 않음에 생각한다. 이런 類型의 解決가 全然 不適切한 것 일지도 모르겠으나 만약 그렇게 한 것이라면 얼마 안되는 우리 大學生 社會의 成員들이 이 어떤 大體적인 共通의 行動이나 態度의 基調가 設定되고 있음을 意味하기는 못할 것이다.

狀況倫理를 個人倫理로 보느냐 集團倫理로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심각도가 달라질 수 있다. 個人倫理가 集團倫理를 앞서는 것이라면 누가 도둑을 막고 들어가는, 머물러 있던 解決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個人倫理의 適應성을 主張하는 사람들은 소위 "중반장" 論議를 내세워 이를 변호할 것 같다. "중반장" 論議란 이른바, "미국까지 大學은 사랑치고 萬년에 '중반장' 정도라도 양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따라서 모두 명석한 智의 소유자들이요, 서리가 존경해야 할 '선각된 자'들이니 裁量의 判斷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누가 되겠느냐" 하는 식의 論議이다. 중반장 얘기가 나올 때 마다 독소가 터지곤 한다. 마치 모두 이미 공명 공감한다는 처럼 - 그러나 그런 웃음 끝에는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좀 문뜩 생각해 보면 무척 自대배의 말이다. 우리에게 무한한 個人倫理의 功을 享用할 수 없는 共通의 정신적, 물질적 영역이 있기 때문 일 것이다.

우리가 한척이라는 엄연한 사실이 그런 공동영역의 존재를 의미한다. 가령 우리는 과거 日本人들이 즐겨 쓰던 "조선징"이라는 말을 상기 할때마다 분노를 느끼고, 미국 친구들이 김치 냄새를 싫어하는 것을 보고 불쾌감에 사로 잡힌다. 마찬가지로 우리 층에 외국어가 많이 와서 몇년 더 스맛 나는 이유때문에 된장찌개 냄새에 이맛살을 찌뜨린다면 아마도 예시꺼움을 느낄 것이다. 그런 막연한 감상의 근거를 이루는 의식구조가 바로 우리에게 집단倫理를 가능케 하는 원동기 아닐까? 분명히 우리는 한척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 見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공통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10人倫理의 橫行을 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意識界를 支配하는 價值傳流의 變遷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척적 가치구조의 혼란은 "코스모폴리탄"적 가치질서의 통일때문에 일어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文明의 가속적 발전 속에서 마치 달걀만 큼이나 줄이는 지구를 생각하고 그속에서 살고 있는 "地球人의 共同의 環境과 運命"을 운운 하는데 까지 과학적 인식의 거스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척이나 바람직한 科學의 공동운영체가 태어날 수 있는 의식구조가 形成될 가능성은 현 재로서도 오히려 높을 것이다. 과학이 가져다 준 그 환상의 달걀, 그 비좁은 구석구석에서 아직도 10人의 集團의 活動은 거의 無價의 紛爭이 계속되고 있다. 自私과 利己의 思想, 재현하는 "뿔치명 論", 보다 좁게는 민족과 국가간이 50보 를 가름하는 生存權의 투쟁 ---- 。 거창한 지구인의 共同社會建設에 시선과 정력을

集注하기엔 앞서 우리에게도 보다 더 적은 共同社會의 領域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山積해 있다. "코스모폴리탄"적 意識界에서 보다 우선 훨씬 더 낮은 한척적 意識界에서부터 價值傳流를 확립하는 事業이 如何한지 不問可也?

우리는 모두 우리의 共同의 意識界에서 오늘날 한척이 당하고 있는 수난을 共同히 알고 있고 憂아 울지도 모르는 혼돈을 豫感하고 있다. 그런 狀況에서 眞正의 多數의 共同의 理想이나 "카에자" 같은 共同의 理想이 要求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비약을 代身하는 漸進의 理想을 抑해하는 謙虛 - 그러한 자세가 오늘날 이른바 "선택의 자"들에게 要求되는 最大의 기대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정치학과)

▲ 편집후기 ▲

- ▲ 첫호가 나간 후에 여러분들의 넘치는 격려를 받고 두번째호를 꾸며봤다.
- ▲ 서두루 박아냄에서 처 주신 제호가 이번호의 변모를 일신시켜 주었으리라 믿고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 ▲ 우리들의 공동의 관심사를 분석, 정리하며 무척 값 있는 논문을 처 주신 박건홍형의 글이나, 아름답고 재치 있는 학생부인 育感을 처 주신 정해주씨에게 고마움을 드린다.
- ▲ 지난호의 광고했던 제호 현상모집 결과 애석하게도 당선작이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특별히 좋은 이름이 나올때 까지 계속 학생회보라는 제호로 계속하기로 편집부와 학생회 임원들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린다.
- ▲ 무슨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여기 하지만, 실은 시작한 일을 얼마나 잘, 어떻게 지속. 유지 하는냐가 중요한 일인것 같다. 우리돈으로 시작한 이 작은 작품이 우리들의 손으로 계속 자라가야겠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밑어 주심과 이끌어 주심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계속 끊임없는 참여와 이끌어 주심을 바란다. (윤희정, 이익화, 이재건)